

“몸과 마음에는 주재하는 ‘나’ 없다”

主宰

일체를 여읜 줄 아는 사람이 곧 부처

여윌 것도, 취할 것도 없는 것이 마음자리다. 그런데 거기에 업식이 붙어서, 때가 묻었다고 하는 것이다. 때가 묻었다는 것도 착각이다. 본래 때 묻은 적이 없는데, 그림자가 자기도 모르는 순간 만들어지면서 그 속에서 버무러지는 것을 반복하는 윤회의 삶을 짓고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윤회를 한 적이 없다. 윤회하는 모습에 속으면 어리석은 중생이 되는 것이고, 본래 열반의 참다운 실상을 바로 눈떠서 윤회한 적이 없음을 알면 아무리 어지러운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는 자세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4대(四大)로 몸을 삼으나, 4대에는 ‘나(我)’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재(主宰)가 없다.

물질을 구성하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사대원소가 임시로 화합한 것을 몸으로 삼으나, 그 안에는 주재하는 ‘나’라고 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주인공’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근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대로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안목을 바꾸지 않고 말만 배워서 곤란하다. 근원을 꿰뚫고 있는 눈높이를 갖추고 있는 분의 점검을 받지 않은 채, 말만 배워서 쓴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 일체 변화하는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근본 실상을 다시는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눈떠야, 나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는 인연을 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재’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5음(五陰)으로 마음을 삼지만, 이 5음 역시 ‘나’도 ‘주재’도 없다.

이 몸통이가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것이 아니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흔히 ‘오온(五蘊)’이라고도 하는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오음을 마음으로 삼지만, 그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실체, 그 근본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여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뭐꼬?(拖死屍句)” 하고 묻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치에만 매달려 쪼개고 들어가면 영원히 쪼개질 뿐이어서, 찾는 데만 세월 다 보내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제로 눈뜨게 해줄 수 있는 선지식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설하는 것이 모두 임제스님이 말씀하신 삼구법문(三句法門)이다. 삼구에서 깨치면 스스로도 제도 못한다고 했다. 이치만 가르치고 이치만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구(活句)로 전환해서 “송장 끌고 다니는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11>



범어사 주지

몸은 ‘지수화풍’ 임시로 화합 그안에 ‘나’ 라는 근거 없는데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나

시작도 끝도없는 근본자리

입놀리지 말고 얘기해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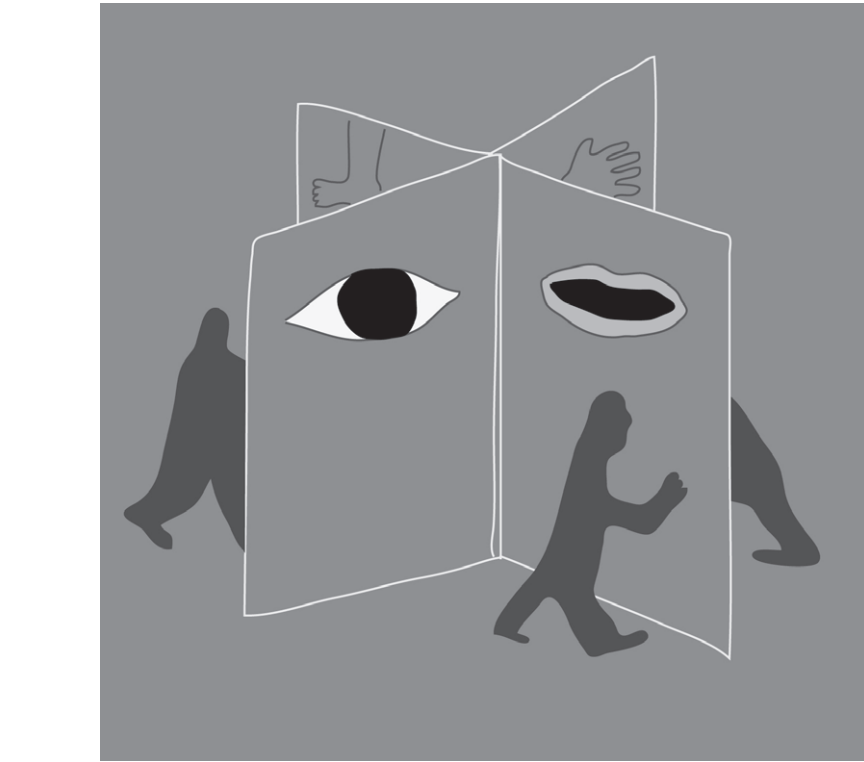
입을써도 쓴바 없음을 알면

남한테 그 소식 전할 수 있다

‘성문·연각’ 깨달음 혼자즐거

남을 제도하는데 한계있어

불보살 가까이해 지혜 얻길



그림·박구원

놈이 뭐꼬?’ 같은 이구(二句)에서 깨달으면, 인연(人天)의 스승은 될 만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빼지린 의심 끝에 선지식의 방과 활에 힘입어 온몸으로 계합할 때는, 일구(一句) 도리에서 안목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조차도 자취를 끊는 말후구(末後句)까지 이야기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근본 실상 자리를 입 놀리지 말고 이야기해봐라!”는 물음에 당했을 때, 입을 써도 쓴 바가 없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어야 그 까닭을 소화하고 남한테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왕좌왕하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해매는 사이에 끝이 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주재’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의 ‘없다’는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는 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없다’이다. 같은 청정(淸淨)이라도 일반론적 청정과 종교론적 청정이 다르듯이, ‘없다’ 하는 말도 표현만 같이 할 뿐이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라면 ‘조주의 무(無)자’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육근·육진·육식이 화합하고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18개가 이미 공(空)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다.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이어서 호호탕탕 청정하다.

한 생각 돌이켜보니까,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6근과 색 성 향 미 촉 범의 6진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식이라는 18가지 인식론적 구성요소가 모두 그림자로 본래 공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분별의 양식(識食)’과 ‘지혜의 양식(智食)’이 있다. 즉 4대로 된 몸은 주립과 질병이 근심거리인데,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버지 않게 하는 것이 ‘지혜의 양식’이다. 반면에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을 모르는 것을 ‘분별의 양식’이라 한다. 성문(聲聞)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성문·연각·벽지불은 소승 계열의 수행자로 혼자 수행해서 깨달은 이들이다. 본인 혼자만 깨달음을 즐기는 소승의 입장을 넘어서,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불보살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보살은 남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만, 성문·연각은 자기 공부만 해도 남을 제도하기는 실로 한계가 있다. 어쩌다 한, 둘을 깨닫게 해줄 수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내려갈 수 있는 인연은 아니다. 그러나 불보살은 원력을 바탕으로 한 방편이 출중해서, 성문·연각이 베푸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그러므로 스스로 논뿐 바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지닐 때까지, 불보살의 법력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진이 월만하게 이루어지면 나누려고 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생각을 불러일으켜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다 입에 불과하다. 이 정도 수준의 나눔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 재산을 보시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결코 자기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종교에서 말하는 나눔은 이러한 나눔을 초월한 나눔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남과 이익을 나누려면, 먼저 안목을 바꿔야 한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⑥



꿈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시니 곧바로 열반에 이르셨네

〈반야심경〉

언어라는 이름의 병

인간은 하나의 병(病)이다. 인간에게 병이 없다면, 결코 진리니 종교니 도(道)니 하는 말도 없을 것이다. 옛스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없는데 파도가 인다”는 말 역시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그 병명은? “말을 하는 병”이다. 언어가 없다면, 인간이 말을 하지 않는 존재라고 한다면 번뇌는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이다. 번뇌는 말길(語路)을 타고서 달려간다. 흩어져 간다. 날아간다.

여기서 ‘말’은 물론 음성언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생각이다. 생각을 의업(意業)이라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의업 역시 사실은 구업(口業)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뇌에다가 어떤 정치를 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고 있는 생각들을 다 언어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다면 그때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갈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혹은 순간순간 하고 있는 생각들을 실시간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서,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의 생각을 찍은 사진들을 쪽 훑어보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아르헨티나의 작가 보르헤스(H.L. Borges)는 그의 소설 〈기억의 천재, 푸네스〉에서 그런 주인공을 형상화했다. 주인공 푸네스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어제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해 내는 데 꼬박 24시간이 걸렸다 한다. 어제를 복원하는데 24시간이 다 소요된다는 것은, 어제 했던 행위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를 다 복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물론 하루 종일 좋은 생각만 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그렇지 못한 것이 중생이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던 생각의 틀이 있고, 늘 지나다니던 생각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영화 ‘달마야 놀자’에는, 처음에 절로 숨어든 조지폭력배들이 절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몸살을 앓는 장면이 나온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생각이 늘 다니던 길, 늘 익혀왔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악인은 악한 일을 늘 생각하기 마련이고, 선인은 선한 일을 늘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업(業)이 중요하고 무서운 것이다. 몽상, 꿈같은 생각은 문학예술에서

는 상상력의 원천으로 칭찬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한 생각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생각이 무서운 것이다. 그 생각이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생각을 지배할 것인가? 부처와 중생의 갈림길이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

모든 것은 생각의 아들이다. 한 생각은 모든 것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 즉 그 어머니가 우리를 낳기 전이야말로 참된 평화가 있는 유투피아다. 진정한 행복의 낙원이다. 선(禪)에서 하는 말로, “부모가 나를 낳기 전의 소식”이라 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

부모가 나를 낳기 전의 소식, 바로 그 곳



그림·박구원

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머리멀리 보내야 한다. 이를 〈반야심경〉에서는 “보살은 꿈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시니 곧바로 열반에 이르셨네.”라고 말씀하셨다. 한역으로 ‘구경열반(究竟涅槃)’이다. 구경은 궁극적인 경지, 완전한 경지를 뜻한다. 범어로는 nistha-nirvāna인데, 소유복합어이다. 즉 궁극적인 경지를 내포하고 있는 열반이라는 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리전도몽상’과 ‘구경열반’이 같은 말이라는 점이다. 꿈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고 난 뒤에 궁극적인 열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꿈같은 생각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 자체가 곧 궁극적인 열반이다. 이 사이에는 시간적인 점차(漸次)가 없다. 곧 동시적이다. 선에서 말하는 돈오(頓悟)를 여기서 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졌다. 우리의 평화로운 삶을 영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생각관리가 필요하다. 그 꿈같은 생각들과 ‘굿바이’ 해야 한다. “안녕, 나의 생각이여, 나의 번뇌여!”, 이렇게 말하자. 이것이 불교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용문선원(龍門禪院) 기공수련 안내

本院은 中國 道家 全眞道 용문파 韓國本院입니다. 본 원은 정통 기공 수련을 통하여 신체와 정신계발을 함께 도모하는 수련을 하는 도량입니다. 수련의 기초과정은 신체의 수련과정으로서,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임맥과 독맥을 타통시키는 小周天 수련입니다. 이와 같은 기초 수련을 통하여 임, 독 二脈을 타통시킨 후 좌선을 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즉, 호흡과 氣를 장악함으로써 좌선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상기병을 예방할 수 있음은 물론 수련을 통하여 얻어지는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한층 더 심도있는 참선수행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본원은 오랜 기간의 수련과 준비과정을 거친 후, 이제부터는 외부로 문호를 개방하여 본 수련에 관심있는 분들과 참선수행 과정에서 상기병 등 각종 장애를 겪고 계신 인연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인연있는 분들에게서는 본 수련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으시길 기도하며, 관심있는 분들에게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사전에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10-3328-3974 (유재용)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1355-3 용문선원

용문선원장 유재용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뻣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은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가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